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답변

김 동 섭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2선거구



“안전한 도시 대전 건설과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 김동섭 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시장과의 일괄질문 · 답변을 1문 1답 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 김동섭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행복한 희망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우리 사회는 장기화된 경제침체와 뜻하지 않은 메르스 파동으로 153만 대전시민 모두가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의 안전문제와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산업 관련입니다.

우리 대전은 유치 경쟁이 전국적으로 치열한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한국치의학연구원 등의 유치와 대전디자인센터의 성공적 설립, 운영을 통해 첨단국방산업, 첨단의료산업, 디자인 산업을 대전의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의 우수한 과학역량 및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침묵단지, 국립근현대사박물관을 비롯해 지방의료특성화사업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을 유치하는 데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대전이 이런 국책사업들을 유치하는 데 실패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당시 대전의 경쟁력보다 새로운 국책사업을 유치

하려는 지금의 대전시의 경쟁력이나 여건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 부문에서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는 국책사업들에 대해 마냥 낙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와 한국치의학연구원 등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의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다양한 군수품의 성능시험, 환경 시험 및 신뢰성 검증을 수행할 평가기관으로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구축사업과 군과 방산업체 관계자 교육을 위한 광주 아카데미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아시다시피 광역교통망이 완벽하게 구축된 국토의 중심지로써 지리적 여건과 함께 대덕특구 내에 ADD, 에트리, 화학연, 기계연 등 우수연구기관들의 협업환경, 국방관련 전문 인력의 수급여건, 대전시의 창조국방산업 지원의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첨단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 신뢰성 센터를 유치할 경우 전국의 국방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고 대전과 중부권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의 유입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첨단국방산업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유·무형의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는 지리적 인접성, 광역교통망, 국방정책 및 소요기관들의 입지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최적의 장소인 우리 대전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성공적 유치를 위한 복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입지 타당성



◎ 권선택 시장

김동섭 의원님께서 국책사업 유치 문제와 시민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 의원님께서서는 각종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뢰성 센터는 지리적인 인접성, 광역교통망, 국방정책 및 수요기관 등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시가 최적지라고 생각되는데 신뢰성센터 유치를 위한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전이 신뢰성센터 유치를 위해서 최적지라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3월 신뢰성센터 설립에 대한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지난 1년간 관련 기관장,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서 우리 시의 유치의지를 전달하고 대전입지의 당위성을 수차례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방위산업학회장 등 관련 전문가 14명을 유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개인별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련 기관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에는 한국기계연구원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유치에 적합한 70여 곳의 부지를 물색해서 현지조사와 검토를 거쳐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치협의회를 거쳐서 대덕구 상서동을 최종 제안부지로 결정해서 공모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전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부지 자체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지역이 갖고 있는 인적네트워크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오는 8월 선정예정인 신뢰성센터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유치활동에 더 큰 힘을 보태주신다면 센터의 대전유치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김동섭 의원

다음은 한국치의학연구원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치의학분야의 창조적인 원천기술 확보와 효율적인 R&D투자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치의학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은 치과의료용 기기업체들과 치과병원 등에서 다른 경쟁지역들에 비해서 다소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치과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의 잠재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전은 대덕특구 내 치과의료기술혁신을 위한 융복합연구환경과 공동연구를 위한 첨단의료분야 연구자원이 풍부합니다.

또한 지역 치과의료산업체와 대덕특구 출연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생산을 통해 치의학클러스터 구축이 매우 유리한 지역으로 기초연구와 중개연구, 나아가 신산업개발이 가능한 장점 등이 다른 지역보다 치과의료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이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현재 대전과 함께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는 유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유치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광주는 대한치과의사회와 MOU를 체결하여 관련 용역 및 포럼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전북 완주군은 원광대 치과 대학을 중심으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본 의원을 중심으로 대전치과의사협회와 열여덟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치의학연구원 유치 민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치의학발전포럼을 개최해 오는 등 대전시와의 공조를 위해 다각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현재는 카이스트 내부설 치의학연구원 형태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이스트 부설 연구소로 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할 경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수행이 가능하고, 지리적 근접성과 함께 설립기간 및 예산 등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설득하기에도 매우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에서는 카이스트측과 부설 연구소 설립 방안에 대하여 대전시에서의 요구는 설립 후 예산지원하겠다, 카이스트는 예산지원 후 설립하겠다는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대전시가 하루 빨리 카이스트 측과 설립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지역 정치권 및 치의학 관련 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택 시장

두 번째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안한 카이스트 부설연구소 형태로 설립을 카이스트와 조속히 합의하고 지역정치권과 관련 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인 유치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서 지역정치권과의 공조 구축 등 전방위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지난 2012년 국회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직까지 법적조치는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전, 대구, 광주, 전북 완주 등 4개 지역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3년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민간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대전입지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을 마치고 카이스트 내 부설연구소 설립방안 마련, 치의학발전포럼 개최 등 관련 기관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추진실무협의회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범시민협의회로 확대·운영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이스트와의 협의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김동섭 의원

다음은 대전디자인센터의 성공적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은 그동안 대덕특구가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과학기술 연구기반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과 기술 연구개발의 융합이 부족해 기업지원과 디자인산업 활성화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대구, 광주, 부산 등은 이미 지역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활용해 오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수요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은 디자인센터 부재로 지역 디자인산업의 역량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13년부터 대전 디자인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전시가 운영경비 최소화를 위해 독립기구가 아닌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설디자인센터 형태로 설립을 추진 하면서 디자인발전협의회 등의 민간단체와 마찰을 빚어 오다가

올 5월 지역디자인센터로의 설립을 확정지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지역 디자인 관련 단체들과의 수많은 협의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대전디자인센터 설립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왔으며, 어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는 등 바람직한 설립 과정을 위해 시와 지역 디자인단체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디자인 중심의 혁신상품 개발이야말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성공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이 없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인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디자인센터의 성공적 설립과 운영을 위해 대전시의 전폭적인 예산지원, 행정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디자인협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디자인산업을 우리 대전의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성공적인 대전디자인센터 설립을 위한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택 시장

세 번째, 대전디자인센터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디자인협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이를 위한 디자인센터의 설립방안과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말씀대로 디자인센터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내 디자인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2일 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5일에는 건립용역중간설명회를 개최하여 건립방향 및 세부정책과제 등을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등에 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대전 디자인센터를 디자인산업분야의 전략적 연구개발기지이자 디자인 개발과 연구, 교육, 비즈니스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자인클러스터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김동섭 의원

다음은 지하철 화재 발생 시 대비책과 민방위 시설장비인 방독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0시 2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아시다시피 이게 지하철역에 비치되어 있는 화재용 긴급대피 마스크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하철 화재 대비 안전점검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준비하던 중에 지난 4일 대동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이 지나갔지만 금번 화재사고가 2014년 11월 20일 출근시간대에 발생한 시청역 화재에 이어서 채 1년도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에 대전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 안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2003년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2명의 사망자, 151명의 부상자, 21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끔찍한 화재 참사였습니다.

대전도시철도는 하루 12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역은 대전역으로써 1일 평균 1만 959명의 승객이 오가고 있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도 좌석은 만석일 만큼 이제는 대전시민들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한 구호용품 현황을 보면 유독 가스를 막아주는 화재마스크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큰 이유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비치공간이 부족하다, 대피안내 직원이 사용할 정도로 비축하고 있다, 그리고 수건에 물을 묻혀 재빨리 탈출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유독가스가 자욱하고 정전되어 캄캄한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려는데 과연 그게 그만큼 쉽겠습니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더 빠른 대피방법으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이용객 중에는 도저히 혼자 힘으로 물수건을 이용해서 유독가스를 막아내며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대동역, 대전역, 서대전역은 지하 30m 거리에 있습니다. 5층 단계를 거쳐야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깊은 역입니다. 평상시에도 미로와 같은 출구를 찾기에 정신이 없는 역입니다.

그러한 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혼자 힘으로 끝까지 탈출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어찌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화재마스크는 제대로 비치해 놓았을까요?

지하철역별로 승강장에 30개씩 비치해 놓았다고 했는데 최근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한방향 보관함에 적게는 9개, 많아도 14개 정도가 보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일률적인 각 역당 배분·보관, 이 또한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하철역별로 하루 평균 이용객 현황만 봐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일률적으로 배분하겠습니까?

또한 화재발생 시 구호용품은 비상시에 신속한 대피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치되어야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대비책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화재마스크 등을 찾기 위해 나가는 곳 반대방향으로 향하거나 보관함을 찾기 위해 헤매는 시간에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하철 화재사고는 끔찍한 대형참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11월 시청역 사고와 며칠 전 대동역 화재는

인명피해가 없이 지나갔고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일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 사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보관하는 것은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조속히 역별 상황에 맞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한 물적 준비물인 구호용품 비치 못지않게 빠른 소화와 대피안내를 해야 하는 직원들의 교육 및 인적 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질서 있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모의훈련, 비상대피훈련 홍보 등도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으로도 단 한 건의 사고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지하철 역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 권선택 시장

네 번째, 지하철 화재대비 역별 이용인원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화재마스크를 30개씩 배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역별 상황에 맞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화재발생 시 대피를 안내하는 직원교육, 모의훈련, 비상대피요령 홍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화재에 대비해서 각 역사별로 각종 구호·안전용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역사별 시설여건,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안전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각 역별 획일적인 비치보다는 승객 수 등을 감안해 차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화재예방을 위해 역사 내 변전소 등 화재요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사 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교육과 비상대피훈련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대피훈련 등 모의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시민의 안전임을 명심하고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김동섭 의원

다음은 대전시청의 방독면 구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시 33분 방독면 제시)

이것이 2002년산 대전시청에 준비되어 있던 방독면입니다.

이것은 5년밖에 시효가 되지 않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 지침에 의하면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무원은 방독면을 1인당 1개씩 확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경우라면 1,400개의 방독면이 비치되어야 하지만 2002년 459개, 2012년 30개 구입이 전부였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에 생산된 442개의 국민방독면이 얼마 전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국민방독면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경과 시 폐기되어야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방독면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에는 2007년부터 사용가능한 방독면이 없던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쓰고 과연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유효기간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샘플 성능검사에서 적합했다면 사용기간을 연장도 하겠지만 방독면의 정화통은 먼지로 인해서 수명이 저하되기 때문에 관리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한 방독면이 8년이 지난, 지난 6월 500개라도 전면 교체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시장님, 과연 이럴진대 대전의 시민안전대책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화재마스크나 방독면을 사용할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있는데도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것의 차이에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10시 3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153만 시민이 안전한 도시 대전 건설과 대전의 미래 먹거리로써의 신성장동력산업이 육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권선택 시장

여섯 번째로, 시청공무원 인원에 비해서 방독면 확보량이 현저히 적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민안전처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방독면 확보 권장량은 1인 1개로 우리 시청은 1,400개를 확보해야 하나 현재 필요수량의 38%인 530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 안전을 위한 방독면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방독면 870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하고 부족한 방독면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비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